

중국, Prosperity사 실적 개선

중국에서 시멘트 제조 및 철광석 무역업을 하고 있는 Prosperity Minerals 홀딩스사는 2006년 9월 30일까지의 6개월 동안의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미화 1,02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멘트와 크링카 부문 총판매량은 Prosperity Minerals 홀딩스사가 2006년 4월부터 지분 전량을 소유하고 있는 Yingde Dragon Mountain 시멘트사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회사인 Prosperity Conch 시멘트사에서 각각 280만톤과 250만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4.7% 인상된 시멘트가격 인상에 따른 결과이다.

Prosperity Minerals 홀딩스사는 시멘트 제조업이 판매량 증가와 가격인상으로 하반기에 출하가 호조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실적은 현재의 시장상황과 일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겸 CEO인 데이비드 왕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목표로 설정한 이래 첫 결과이며 같은 기간동안 의미있는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시멘트 제조부문은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우수했으며 철강무역은 여건악화를 겪으면서도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7. 1월호)

베트남,

2010년에 시멘트 생산 자체조달 가능

베트남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시멘트산업의 공급이 오는 2010년쯤이면 전체 수요량 5,000만톤을 넘어서 6,000만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구엔 반 티엔 베트남 시멘트협회장은 1월 16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금융공사(IFC) 관련 워크숍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는 시멘트 생산계획의 확대와 함께 육로 및 수상공동 등 물류시스템에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는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에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많은 업체들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태가 덩핑같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까닭에 베트남 시멘트산업은 주정부 지분 소유의 기업과 기술 및 재정부문에 우위를 가진,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충분한 범국가적인 시멘트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표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시멘트산업 전략으로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IFC 베트남 사무국장인 신 흥 윈은 베트남에서의 시멘트산업은 대규모 건설 등 빠르게 개발됨에 따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시멘트 내수는 3,250만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이래, 국제금융공사(IFC)는 베트남의 시멘트, 철강, 목재, 호텔 부문과 섬유 등 25개 회사에 미화 5억달러를 투입해 왔다.

(2007. 1. 16 베트남 국영통신 VNA)

인도, 시멘트산업 수익성 급신장

인도의 시멘트 업계가 가격인상과 수요증가, 도로·교량·주택부문 투자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 분기별 수익성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주택건설경기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공항,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금 투자로 연간 8%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 경기의 상승세는 적어도 18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강한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모티랄 오스왈 증권사의 지내쉬 간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라심사의 다각화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울트라테크 시멘트사는 18일에 영업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울트라테크사는 분기 순이익이 8배나 증가한 19억 6,000만 루피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의 주택부문은 시멘트 수요 부문에 대략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위험신호도 없으며 수요 또한 개발지구 및 경제특구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생산능력 확충은 신규공장의 지연과 연초부터 시작해서 10~12월 기간에 30%나 증가한 시멘트 가격으로 인해 공장부지 지 취득상의 문제가 생겨 기대치보다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지난 11월에 도이치 은행은 보고서에서 인도 시멘트 가격이 2006~2009 회계연도 기간 공급성장을 8.3%에 비해 시멘트 수요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향후 12개월 동안 약 35%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인도에는 총 생산능력 1억 6,500만톤의 시설을 갖춘 48개업체가 365개 공장을 운영중에 있다. “비록 7,500만톤에 달하는 생산능력 확충은 이미 발표했던 것이지만 2008년말과 2009년에 중요한 생산능력 확충이 있을 것이다”라고 간디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스위스의 홀심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제2위의 시멘트사인 ACC사는 생산능력 확충부족으로 판매량 증가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53%나 증가한 29억 4,000만 루피(미화 6,640만달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시멘트업계의 평균 판매량은 약 10%가량 증가하였다. 인도의 최대시멘트 회사인 그라심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약 60%가 증가하였으며 4/4분기 순이익은 145%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홀심사가 2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3위의 시멘트사인 구자라트사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4분기에 그라심사의 주가는 시멘트업계 전체 주가가 10.7% 증가한 것(1달러=44.2루피)에 비해 11%가 올랐으며 이는 ACC사의 9% 증가보다 높

은 것이며 구자라트사와 울트라테크사는 각각 21%, 23% 상승하였다.

(로이터통신 2007. 1. 18)

독일 하이델베르크社, 인도에 시멘트공장 신설

세계 제4위의 시멘트업체인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연산 2,000만톤의 시멘트공장을 신설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동사는 이미 인도에 연산 350만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인도를 방문한 하이델베르크사의 CEO인 B. Scheifele는 향후 3~4년간 인수나 기존 설비투자 확충 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투자의 방식을 통해 1,000~1,500만톤의 생산능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사는 지난해 7월 인도의 Mysore 시멘트사가 보유한 Rama 시멘트사의 지분 15%를 9,40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RTTNews, 2007. 3. 19)

멕시코 시멕스社, 국내 확장 계획

시멕스사의 대변인인 Ricardo Charvel은 미화 12억달러를 투자하여 오는 2009년까지 시설확장과 국내영업을 유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투자는 멕시코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2,720만톤에서 13.9% 증가한 3,160만톤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확장계획은 지난 1995년 푸에블라 중부지역에 위치한 테페카 공장의 증설이후 첫 번째 증설이다.

신규 계획의 일환으로 시멕스사는 향후 3년간 테페카에 4억 6,000만달러를 투자하여 137% 증가한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며 또한 2년동안 소노라 북

서부에 위치한 시멘토스 델 야퀴 공장에 2억 1,000만달러를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동사는 멕시코내의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변인인 Charvel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이 실행된다면 올해 시멘트 판매량이 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동사는 지난 1월 15일에 시멘트 가격을 5% 인상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가격인상은 미국에서도 감지된다고 언급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7. 2월호)

중국, 시멘트산업 지난해 호황

중국의 시멘트산업이 괄목할만한 수익을 거뒀다. 지난 2006년 11월말까지 중국 전체 시멘트산업의 생산량은 10억 970만톤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19.7%가 늘어난 수치이다. 연간 생산량은 12억톤을 초과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액은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 11월말까지 매출액은 2,868억인민폐이며, 전년 동기대비 24.1%가 늘어났으며 연간 매출액은 3,000억 인민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 이익 역시 새로운 기록을 올렸는데 지난해 11월말까지 손실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04.8%가 증가한 122억 2,380만 인민폐를 시현하였다. 연간 총수익은 지난 2004년의 실적을 초과한 150억인민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되었는데 지난해 11월말까지 시멘트와 크링카 수출은 전년대비 73.7% 증가한 3,363만톤에 달했다. 투자구조는 더 낙관적이다. 지난해 11월말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338억 7,400만 인민폐를 기록하였으나 신규 건설계획은 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대규모의 건설 공정 계획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에 77개의 신규 건설공정의 시멘트 생산라인이 확충됨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의 크링카 신규 생산능력

은 전년대비 10%P가 증가한 8,448만톤이었고 전체 시멘트공장 중 신규 건설공정의 시멘트공장은 49%가 증가하였다. 기업합병과 재조정 과정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후이 콩치사, 중국 국영건재사사와 중국 국영 건재산업그룹은 소규모 시멘트사를 매입하는 확장을 통해 시멘트산업의 집중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시멘트산업은 낙관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절감, 소비 감축 및 완화목표 달성 등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다.

중국시멘트 산업이 자본, 시설, 기술, 경영관리, 서비스 등에서 국제화된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시멘트회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7. 2월호)

이탈리아, 이탈시멘티社 판매량 급증

지난해 이탈리아 최대 시멘트업체인 이탈시멘티사의 총매출액은 17.1% 증가한 58억 5,410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시멘트·크링카부문이 21.7% 증가한 17억 5,150만 유로를 시현하였으며 콘크리트·골재부문이 8.3% 늘어난 17억 5,150만 유로를 시현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업비용이 증가하였지만 지난해 4/4분기에 기상여건이 좋아 판매량이 14.4%나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시멘트, 크링카 출하는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자국내에서의 매출은 9.2% 증가한 16억 1,950만 유로였으며 유럽 다른 국가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12.3% 증가한 20억 4,370만 유로였다. 유럽에서의 시멘트 크링카 출하량은 4.2% 늘어난 2,670만톤이었으며 자국내 출하량은 1,400만톤이었다. 지중해 주변 국가들 중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시멘트사와 헬완시멘트사의 실적호전에 힘입었는데 양사의 매출액은 37.2% 증가한 11억 550만 유로였으며 시멘트 출하량도 31.7% 증가한 2,010만톤을 기록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7. 3월호)